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좌초되나

서진건설, 재정부담에 480억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희망 市 “공모 지침 위반... 오늘까지 일시납부 수용 답변 달라”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개발사업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자 공모 지침 규정처럼 ‘일시 납부’를 요구하는 광주시와 우선협상자인 (주)서진건설 측의 ‘분할 납부’ 입장이 맞서면서다.

광주시가 이행보증금 관련 서진건설 측 입장을 주중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금명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제 3차 공모 지침(제25호)은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

시한 총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시행자(광주도시공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현금, 정기에금증서, 보증보험증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진건설은 전체 사업비 5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여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약 18억원)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최근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공간을 늘리는 대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

변경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수수료 18억원)으로 3단계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분할 납부’는 공모 지침 위반’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서진건설 측에 전달했다. 이번주 내로 이행보증금 관련 공모지침 준수 여부를 통보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이 주중 이행보증금 관련 공모 지침 준수 여부를 밝혀오면 오는 25일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진건설 측이 끝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고수한다면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조차 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

장, 공원 등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외에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주)어등산리조트는 시민과 약속한 기부금 전체를 납부하라, 광주시는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골프장 운영사인 어등산리조트 측은 지난 2012년 어등산 골프장 선(先) 개장 조건으로 기부금 납부를 약속한 후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다가 납부를 독촉하는 광주시에 ‘내년에 2억원을 내놓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

업체 측은 지난 2012년 대중제 9홀 순 수익금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연간 2억원 이상 기부금을 내놓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 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참석

광주·전남 유일 회원사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한국신문협회 부회장·사진)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회원사 발행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의 뉴스 서비스 정책과 언론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론 리(John Lee) 구글 코리아 사장의 모두 인사말에 이어 구글



의 미디어지원 프로젝트, 뉴스의 유튜브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50개 신문, 2개 통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상습침수·농업용수 부족... 전남 ‘물 소외지역’

서삼석 의원 “배수 개선·농촌용수개발 중장기 계획 시급”

농림부·농어촌공, 농경지 현황

상습 침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경지(논) 면적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農度)인 전남이 사실상 ‘물 소외 지역’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 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논)농경지 86만4000ha(2018년 기준) 중에 11만7653ha는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1703ha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충남 2만2954ha ▲경남 1만6912ha ▲전북 1만6901ha ▲경북 8734ha ▲제주 7652ha ▲경기 4989ha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전국에서 1위다. 지난해 기준 전국 15만7441ha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에 전남이 4만3033ha로 물 부족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충남(3만3431ha) ▲경기(2만2905ha) ▲전북(2만507ha) ▲경북(1만4859ha) 등이 뒤를 이었다.

상습 침수 농경지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시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모두 연간사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지난 2015년 6000ha 가운데 5902ha, 2016년 6000ha 중 3876ha이었으며, 2018년에는 6000ha 가운데 4900ha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도 2017년 목표치인 4766ha에서 4286ha, 2018년 3508ha에서 2767ha에 그치는 등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 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에 15만7441ha임에도 실제 용수 부족지역의 21.7%인 3만4174ha(2019년 10월 기준)만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전세계가 주목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뉴욕타임즈 12월26일자 기사3건 당시 보도... 전남대 공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주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29년 12월 26일 자 ‘도쿄 경찰 한국 학생 180명 체포’ 등 뉴욕타임즈 기사 3건을 17일 공개했다.

김 교수는 이 기사를 지난 7월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발굴했다. 첫 기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는 공산주의 경향의 비밀결사가 주도한 정치적 사건으로, 1929년 12월 9일 900여명의 학생이 체포됐다. 한국 6개 지방 40여개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모든 사건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후인 12월 28일 자 ‘한국학생들이 시위 준비로 체포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도쿄 경찰은 한국 유학생과 노동자 1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로 구성된 도쿄에 있는 대학의 비밀단체”라고 나와있다. 1930년 2월 4일

자에서는 “몇 주 동안 한국에서 광범위한 학생 시위가 보고됐지만, 시위는 격렬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조선총독부가 판단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은 공산주의자가 중심이 돼 일으켰다. 많은 학생이 체포됐지만,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소수였다고 밝혔다”고 게재했다.

김 교수는 뉴욕타임즈 보도에 대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축소·왜곡해 일부 소수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사소한 일로 취급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주재 기자가 일본 정부에 의존한 간접취재를 하면서 드러난 한계로, 광주나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현장감 있게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된 포쉬체 자이퉁(Vossische Zeitung)의 1930년 2월 23일 자 기사는 리처드 카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뉴욕타임스가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당시 192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김 교수가 미국 뉴욕공공도서관에서 발굴한 뉴욕타임스의 광주학생독립운동 보도 기사들. 2019.10.17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가 서울에서 직접 취재해 A4 4매 분량으로 자세하게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1930년 1월과 3월 2회에 걸쳐 ‘북미 한인 유학생회 소식지’를 인용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실상을 다뤘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김 교수는 학생독립운동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찾아내는 등 최근 10년 동안 미국·중국·독일·영·소련·쿠바·멕시코 등에서 보도한 기사를 발굴했다.

/김영희 기자 kimyh@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

조슈아 왕·왕단 등 시위 주역들 한국에 지지 호소

중화권 민주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싱크 탱크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는 홍콩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왕(黃之鋒)과 중국 텐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王丹) 등이 한국에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슈아 왕은 입장문을 통해 “홍콩 시민

들은 한국의 촛불집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영화 ‘1987’의 배경이 됐던 6월 항쟁 등을 통해 한국인이 민주와 인권을 위해 용기 내 싸운 역사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는 한국인들이 먼저 걸어온 ‘민주화의 길’을 홍콩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꾸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슈아 왕은 지난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에 점거한 가운데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의 주역이었다. 당시 그는 겨우 17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왕단은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다”며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 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왕단은 1989년 텐안먼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학생 지도부 21명 가운데 한 명이였다. 당시 베이징대 학생이던 그는 반혁명선동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복역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활동을 해왔다.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는 앞으로 ‘홍콩 시위 지지’ 주제의 커뮤니티를 진행해 수익금 일부를 홍콩 시위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 등에게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입야
바로잡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금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고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농성초교 옆 도로점 2층 주택 땅 140㎡ 집 153㎡ 2억2천
- 자연인 생활 적합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산 34612㎡ 청정환경 1억
- 상가부지 남구 주월동 소망도로점 247㎡ 가계 신축해서 임대 출음 2억8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69㎡ 전원생활에 좋음 2억8천
- 무안 문안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양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면 땅(답) 8232㎡ 주위조경출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출음 1억3천

상가건물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매도 15억천
- 운양동 아파트상가동 지하206㎡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함평군 영산면 바다점 땅 2167㎡ 3층 펜션 있고 숙박시설 적합 6억5천
- 유등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점 주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평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대체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국입야
잡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서전,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s://cafe.daum.net/ihmygg 참고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8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상수 010-4622-2337 (0메일 kss237@han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발 홍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